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15일 월요일 음 2월 3일 (10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후들며 차차 흐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기온은 7~10℃, 낮 최고 기온은 17~18℃로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Table with precipitation forecasts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sunrise, sunset, moonrise, and moonset times.

Table with 7-day weather forecast.

Table with air quality and UV index information.

월드뉴스

美 정부 북한 접촉 시도... 아직 답 없어

“뉴욕 등 여러 채널 통해 시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월 중순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막후 접촉을 시도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시간) 익명의 미 행정부 고위 관리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

보도에 따르면 이 관리자는 “2월 중순 이후 뉴욕(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을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 정부에 접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리자는 “현재까지 평양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례 없는 관계를 맺었지만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바이든 정부 관리자는 트럼프 말기를 포함해 미국이 여러 차례 관여를 시도했음에도 북미 간에 1년 넘게 활발한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아무런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그동안 미 대선이 끝나고 새 정권이 들어서실 때 북한이 도발을 감행해 온 전력이 있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대북 물밑 접촉 시도는 정책 검토 중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전미 노딜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속에 기존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며 검토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한리일보 masthead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백록담



백금탁

제2사회부장 겸 서귀포지사장

제주 제2공항 문제가 정치권까지 비화되는 형국이다. 찬반 주민과 단체를 넘어 제주도의회에 이어 중앙정치권에서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제주도와 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면, 공항에서 먼 지역은 반대가 우세해 접근성 등에 대한 염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공항 예정지인 성산을 주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한국갤럽 64.9%·반대 31.4%, 엠브레인퍼블릭 찬성 65.6%·반대 33.3%)이 우세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장 발표로 도와 의회 간의 관계는 급속하게 얼어붙었다. 여기에 원 지사가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에게 일부의 이야기만으로 도민을 선동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해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심 전 대표가 15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백지화 기자회견을 열 예정으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별로 입장이 엇갈려 정상 추진과 백지화 요구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갈등구조는 앞으로 1년여를 남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부터 24일까지 제393회 도의회 임시회가 열린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 예산집행 등 여러가지 지역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도와 의회 간의 냉기류로 정상적 의회 진행이 우려된다.

이에 도의회 제2공항갈등해소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박원철·홍명환 의원은 이날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감정과 도민 갈등을 부추기고, 성산주민의 찬성비율이 높아 제2공항 주민 수용성이 확보됐다는 원 지사의 주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라며 원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원 지사는 “도민 여론조사는 참고용일 뿐 제2공항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발언은 도의 수장으로서는 결정보다는 정치적 발언에 비중을 뒀다. 국토부로 공을 넘겼고, 정부의 결정은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풀고 나서야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시간적 여유를 얻겠다는 셈법인 듯하다. 하지만 제주사회의 갈등구조는 현재진행형이다.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후, 제2공항 찬성·반대 단체와 각 정당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도민들의 정서적 불안은 커져가고, 지역경제는 침체된 지 오래고, 제2공항 문제로 갈등은 심화되는 등 제주사회가 혼란스럽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해군기지 문제부터 제2공항 문제까지 겹겹이 쌓인 도민사회의 갈등구조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며 도민의 삶은 실로 불행의 연속이다.

좌남수 의장도 다음날인 지난 11일 고영권 제주도 정부부지사를 의회로 불러 제주도와 의회간 합의를 파기한 부분 등에 대해 따졌다. 원 지사의 제2공항에 대한 공식입

원 지사의 제2공항에 대한 공식입

그 엄하고실신 실타래를 누가 풀 것인가. 묻고 싶다. ‘과연, 제주도와 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열린마당

뉴노멀 시대의 지방정부 그리고 세계평화의 섬 비대면 시대, 소통을 생각하다



김동석

제주특별자치도 평화대외협력과

빌 게이츠는 “앞으로 수년 안에 천만 이상의 인류를 죽이는 것은 전쟁이 아닌 바이러스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강대국들이 군사 등 전통 안보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는 반면 전염병과 같은 비전통 안보에는 무관심한 행태를 지적했다.

실패 가운데 이를 실천할 주제로 지방정부들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그간 지방정부의 공공외교는 국가 외교의 보충적 대안으로만 인식돼 왔었다. 하지만 국가 단위의 협력에 한계에 직면한 현재, 그 가치는 재평가되고 있다. 이는 지방행정의 정체성이 소시민들의 삶, 미시적 문제의 해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소시민들의 생명을 지킨 드라이브스루 등 효과적인 정책들이 지방정부의 자부심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부진근

서귀포시 총무과

실례로 지난해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위험성을 폄하할 당시 미국 메릴랜드주 래리 호건 주지사는 한국산 코로나 진단키트 50만 회 분량을 공수하는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렸다. 몸집이 비대한 대국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지방정부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민첩히 움직인 것이다. 유발 하라리는 팬데믹 이후 세대를 위해 글로벌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을 촉구했는데, 강대국들과 국제 레진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대면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길어지면서 가족 간 만남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다. 대면 모임이 줄어들고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상권이 붕괴되고 공연 등 문화예술계 또한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 이러한 대면 모임과 소통의 한계는 행정도 마찬가지다. 당초 대규모 시민 초청 간담회 및 설명회 등 각종 사회단체 및 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대면 행사가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방역 등의 어려움으로 불가능해졌다. 이에 온택트 등 새로운 소통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서귀포시는 공직 내부 및 시민과의 온택트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영상 스튜디오’를 설치하기로 하고, 5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2월 서귀포시 청사 본관 3층 회의실에 비대면 방송 시스템인 영상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그 결과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온나라 영상회의, 줌)을 이용해 실시간 소통 및 교육과 시청방송 507번(유튜브 등 실시간 중계) 송출 등이 가능하게 됐다.

운영이 시작되면서 반응은 뜨거웠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요청이 들어와 국외 자매도시와의 화상회의, 마을관광 컨설팅 등 화상면접, 직원 공감도조사 미국 파견 직원 및 마라도 직원과의 현장 대화, 강사 초청 서귀포시 뉴딜 교육 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온택트 및 소통의 장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비대면 시대에 공직 내부는 물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소통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부고 notice for Kang Gi-jeong (92 years old), former Jeju University professor and legislator.

부고 notice for Kim Jeong-beom (96 years old), former Jeju University professor and legislator.

부고 notice for Mun Jaeng-hyeok (75 years old), former Jeju University professor and legislator.

감사의 말씀 notice for Jeong Gyeong-mi (101 years old), thanking her family for their support.

감사의 말씀 notice for Lee Myung-bok (92 years old), thanking her family for their support.